

●민형배(광주 광산을)

광주 유일 재선...대표 정치인 발돋움



'정치 거물' 이낙연 상대 낙승 정치적 위상 상승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자는 광주 지역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이다.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 거물'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를 어렵지 않게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 사회학 박사인 민 당선자는 전남일보 기자를 거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지냈고 제21대 총선 때에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 1위, 본회의 출석률 1위(100%)를 기록한 바 있다. 9개 상임위(특위 포함)를 거쳤고 9차례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 등 당직도 두루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때엔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고, 전략본부장으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 승리를 이끌었다.

또한 지역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광산고 신설 추진, 광주 AI영재고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등 광산구와 광주 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2년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검찰정화법 통과를 이끈 희생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개혁 완수를 약속하며 이낙연 후보의 도전을 가법게 꺾고 여의도행을 확정지었다.

재선에 성공하면 당 최고위원 도전 공언한 만큼 22대 국회 개원 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선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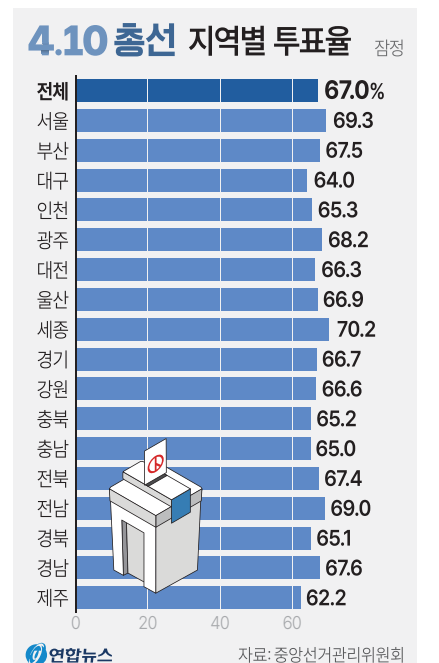
'사전투표'·'심판론' 32년만의 최고 투표율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 67%...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

4·10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각 당이 내세운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지지층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여야가 극한 대결 속에 내세운 '심판론'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천48만11명 가운데 2천966만2천313명이 투표에 참여, 67.0%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총선(66.2%)보다 0.8%p 높은 수치이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총선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 참여율로 예고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보수 유권자들도 정치권의 사전투표 독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여야가 각각 선거 전면에 내세운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본노 투표'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웠다.

비록 심판의 대상은 다르지만,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본노 투표'가 이뤄질 때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양당이 각각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서는 유인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선 투표율이 평균 이상이었다. 전남(69.0%), 광주(68.2%), 전북(67.4%) 등으로 이들 지역 모두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는 평균 이하였다. 대구(64.0%)는 제주(62.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투표율이 낮았고, 경북(65.1%)도 평균 이하였다.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연합뉴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동일 지역구서 내리 '4선 달성' 기염



농정 전문가 능력 인정...무소속 이석형 돌풍 잠재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당선자(담양·함평·영광·장성)는 무소속 이석형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해당 지역구에서만 내리 4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당선자의 4선 성공은 쉽지 않았다.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3선인 이개호 의원을 단수공천한 데 반발한 이석형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3선 함평군수를 역임한 이석형 후보는 함평을 기반으로 4개 지역에서

'현역교체론'으로 돌풍을 이어갔지만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이개호 당선자의 벽을 결국 넘지는 못했다.

이 당선자는 2014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제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을 뚫고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살아 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8년 제6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돼 13개월 동안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농정을 기치로 팔았던 안정화에 주력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정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립심판관센터, 호남고속철도, 한전공대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일조했다. /박선강기자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46년 만에 전남 女국회의원 탄생



4선 도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꺾고 국회 입성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당선자는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접전을 펼친 끝에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권 당선자는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 이후 8·1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운덕 전 의원(나주군·광산군)에 이어 46년 만에 전남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했다.

당초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민주당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권 당선자가 단수 공천됐

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며 단수 공천을 포기하고 스스로 경선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한 결과 공천장을 따냈다.

본선 진출 확정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정당 불모지인 순천에서 2차레나 당선될 정도로 지지 기반이 확고한 관록의 이정현

후보였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지만 지역에 불어닥친 정권심판론은 결국 정치 신인 권 당선자 손을 들어줬다.

광양 출신인 권 당선자는 35년 동안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 정책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 중앙당 당직과 청와대 요직을 거치며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 /양시원기자

광주 68.2%·전남 69%...70% 돌파 실패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투표율이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을 반영해 70%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투표율은 각각 68.2%, 69.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67%)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남은 세종(70.2%)·서울(6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41.19%(전국

평균 3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38%로 세 번째였다.

광주는 1992년 14대 총선(70.1%) 이후 32년 만에, 전남은 1989년 15대 총선(69.8%)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의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4.5%, 16대 54%, 17대 60.2%, 18대 42.4%, 19대 52.7%, 20대 61.6%, 21대 65.9%다.

전남은 15대 69.8%, 16대 66.8%, 17대 63.4%, 18대 50.0%, 19대 56.7%, 20대 63.7%, 21대 67.8%를 기록했다. /박선강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컬센터 2, 3층

☎ 062.430.2020

에덴병원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광주시티병원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